

 All iCloud


## 타임라인

**6/22일 04-07시 사이** 전남자친구와 관계 중 몰래 영상 촬영

촬영 직후 전남자친구가 씻을 때 몰래 핸드폰 열어서 확인 했는데 당황해서 내 폰으로 옮기진 못하고 아무 말 안 한 뒤 일단 같이 잠들

**6/22 15시쯤** 다시 핸드폰 몰래 열어보니 앨범에 영상 없음 휴지통에도 없음 카톡이랑 클라우드는 비번 몰라서 확인 못함

**6/22 16시쯤** 전화 통화 내용 녹취 - 전 날 안 취했다고 말하는 내용 담김

**6:22 16시 통화 스크립트.docx**

Word Document · 14 KB



**6:22 16시 통화.MOV.zip**

ZIP Archive · 354.3 MB



**6/22 20-22시 사이에** 촬영 사실 인정하는 대화 녹취 - 일부러 그러려던거 아니라고 함

**6:22 20시 녹취 스크립트.docx**

Word Document · 14 KB



&lt; All iCloud



6:22 20시 녹취 스크립트.docx

Word Document · 14 KB



6:22 20시녹취록

October 16, 2024 at 4:48 AM

Audio · 5m



6/23 03시쯤 헤어지자고 말함. 또 다시 촬영 사실 인정하는 대화 녹취 - "어제 할 때 몰래 찍어서 미안해", 많이 취했다고 함 전날엔 안취했다 해놓고 말에 모순.

6:23 03시 녹취 스크립트.docx

Word Document · 16 KB



6:23 03시 녹취록

October 16, 2024 at 4:49 AM

Audio · 20m



6/23-6/25 사이 카톡 대화

PDF

PDF Document · 1.2 MB



6/24 02-03시 112 전화

이전에 경찰에 신고하려 했더 이력





PDF

PDF Document · 1.2 MB



6/24 02-03시 112 전화

이전에 경찰에 신고하려 했던 이력

(접수일:20240624,사건번호:184)

PDF Document · 795 KB



이때 신고 안 한 이유) 헤어진 뒤로도 계속 같이 얼굴 보면서 알바 해야할 날이 2주나 남았어서 그 사이에 고소 진행되고 연락이 가버리면 보복할까봐 6/25 낮 연락 없이 집 현관 앞까지 찾아와서 무서웠음

헤어진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보냈던 연락들

이주밖에 안남아서...

PDF Document · 6.3 MB



7/10-14일 사이 재회

9/4 다시 헤어짐



오빠 얼마나 취했는데?

나도 그렇게 많이는 안 취했어.

아니 어제 그 우리 잘때 존나 자기가 존나 쌀쌀맞아가지고 갑자기... 좀 그랬어.

뭐가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가 쌀쌀맞았다니깐? 어?

그랬나...

자기 바로 씻고 오자마자 바로 등 돌려서 짹짹.

졸려서 그랬나보지.

안아달라니까 아 졸려 이려고.

바로 씻게? 잠 좀 깬어?

잠 아까부터 깬는데?

그래?

응.

할 말 없으면 끊을게요.

자기 기분 안 좋아?

아니? 준비하려고.

어제부터 좀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이따 얘기하자. 나 지금 준비할게.

알았어.

응.



나한테 화났어?

이유를 몰라? 몰라서 물어보는거야?

미안해

어?

미안해

뭐가 미안한건데

어제 취했나봐..

이따 얘기하자

지금 얘기하자

될 지금 얘기해

지금 얘기해

싫어

왜

끝나고 얘기해

한참 남았잖아

하.. 집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지금 얘기하면 안돼?

바보야? 걸릴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

일부러 그러려던건 아니었어

뭔소리야.. 그게 뭔소리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짐 싸서 집에 가져다 댔어

왜..



## 623 03시 녹취 스크립트

Done

뭐가 미안한지 정확히 말해야지. 사과할텐

어제 할때 몰래 찍어서 미안해

전에도 그런 적 있어?

없어

진짜로? 왜 지웠어? 언제 지웠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왜 지웠는데? 내 기분 안 좋아보여서 눈치 보다가 지운 거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지웠어

날 얼마나 바보로 봤으면 그럴 수 있을까 싶어. 내가 취해보였어 그렇게? 내가 취해보여서 안 걸릴 거라고 생각 모를 거라고 생각 한거야? 그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어? 취해보여서 괜찮을 거라고?

아니 내가 좀 취해가지고

어제 우리 페트 두병도 안 마셨는데 뭘 취해

좀 취했었어

그리고 나한테 계속 화났냐고만 물어봤잖아. 나는 일어나서 난 이미 어제 밤에 다 알았는데 일어나서 바로 말했으면 미친년인척 한번 봐줬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계속 화 났냐고만 물어보고 심지어 나보고 막 어제 많이 취했냐고 기억 나냐고 물어봤잖아 나는 떠본다고밖에 안느껴졌고 그래서 내가 말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갔을 거 아니야? 먼저 말 안 했을 거잖아. 나는 너무 정이 떨어져서 계속 못 볼것 같애. 내가 뭘 믿고 만나야돼 내가 한번 봐주고 넘어가주면 또 안그럴거라는 보장이 없잖아

진짜 안 그렇게

아니 바람 피는거 봐주는 여자애들도 이해가 안되는데 이걸 아예 다른 범주야 이거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진짜? 이거 함박하는게 아니라 진짜 만약에 내가 신고하잖아? 내가 함의 해도 천만원부터 시작이고 내가 함의 안하면 오빠 진짜 빨간줄 그어 진짜로 내가 변호사쓰면 합의금에 다 나오는데. 미안한데 난 어제 그걸 본 순간부터 헤어질지 말지를 고민한게 아니라 헤어지고 신고할지 말지를 고민했어 하루종일.

진짜 미안해 내가 취해서 미쳤었나봐

오빠가 왜 울어

진짜 미안해 진짜 다신 안 그렇게 미안해 어제 진짜 술 먹고 미쳤

었나봐 미안해 진짜 진짜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아 제발 제발 안

그렇게

근데 난 이미 마음이 사라졌어

아 제발

나는 우리가 3개월밖에 안 만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

아 제발 아 잠깐만

아 왜

아 진짜 왜그래 아 미안해 어? 진짜 안 그렇게 아 잠깐만 진짜 다

소야 제발 다시 안 그렇게 어? 잠깐만

아니 내가 이미 오빠 안 좋아한다니까? 너무 싫어

진짜 안 그렇게 다 사죄하면서 갚을게 진짜 제발

아니 그렇게 만나면 오빠한테도 나한테도 해가 된다니까?

진짜 안 그렇게 미안해 진짜 진짜로 내가 진짜 미쳤었나봐 내가

내가 술 먹고 실수했다는 말이 이해는 되는데 그게 실수로 다 되는



02:07

LTE 10

< 32

지석규

🔍

☰

비판에 너도 답답해서인 영을 기억이 없었던데 사과할게 내 잘못된 행동으로 우리의 관계를 망친것같아 다소는 지금 내가 그냥 싫겠지만 나는 진심으로 많이 좋아했고 사랑했어 나한테 정 다 떨어졌을텐데 만나서 얘기해줘서 고마워 정말 내가 이런 사람한테 한순간에 큰 상처를 준거같아서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 그동안 만나면서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다 깨버렸어 정말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데 내가 미친놈인가봐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만 나는 정말 다소랑 행복한 미래를 계속 그렸는데 한순간 잘못으로 내가 다 망쳐버렸네 피곤할텐데 너무 길게 썼다 그치만 어떻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꼭 쉬어 고생 많았어 오늘도 진짜 열심히고 야심도 없고 이 새끼가 사랑인가 심을테지만 나같은 놈이 상처줘서 미안해 꼭 쉬어

03:43

📅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

난 어찌제부터 오늘까지도 오빠 말 듣고도 마음 변화 전혀 없고 야간 계속 안보내줄것같아서 알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붙잡거나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위에 보낸거에서는 오빠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놓고 나한테 자꾸 이러는거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고 힘든 행동이야 오빠가 자꾸 감정적으로 뭐 사귀때 너무 잘맞았고 술취해서 한 실수다 이런식으로 어필하지만 우리는 이제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성범죄 가해자, 피해자일 뿐이야 오빠 일 그만둘때까지 이주동안이나 얼굴보고 일 같이 해야되는 것도 무섭고 손떨리고 집도 이사 가고싶어 난 몇번이고 말했지만 깔끔히 헤어져만 주는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봐준거고 진짜 참고있는거 알아주라 그 이상 바라는 건 말도안되는 욕심이야 아무리 실수였어도 그거에 대한 후회 자책은 오빠 몫이고 내가 그걸 신경써줄 이유는 없어

01:52

+

😊

#

00:44

74%

< 53

지석규

🔍

☰



2:40

71%

(접수일:20240624,사건번호:184) ▾

Done



2 of 2

Text Message · SMS



2:41

24%

< 159



0411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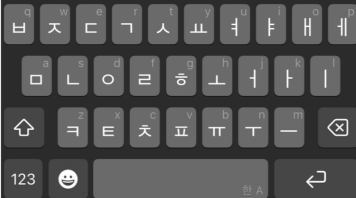
[Web발신]  
2023.06.12 20:19:22에 접수,  
문성파출소에서 출동  
-충청남도경찰청-

Mon, Jun 24 at 2:21 AM

경찰청 112 : 접수  
[Web발신]  
2024.06.24 02:21:41에 접수,  
신안파출소에서 출동  
(접수일시:2024.06.24 02:21:41,사  
건번호:184)  
-충청남도경찰청-



Text Message · SMS



123



한 A

